

구제역과 AI, 겨울철 주의해야 할 가축질병 관리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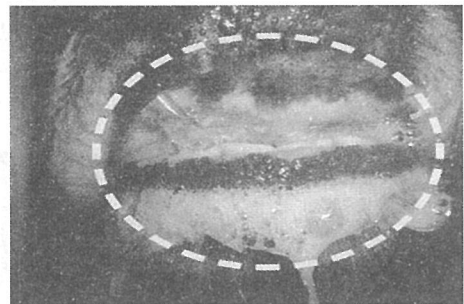
정 영 훈 기술지원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전염병의 발생 후 방역조치는 매우 힘들고 어려우며 국가적으로 많은 손실을 유발하기 때문에 각 농장마다 차단방역 조치를 철저히 실시해 질병의 발생 및 확산을 막아야 한다. 겨울철 주의해야 할 가축질병의 관리기술에 대해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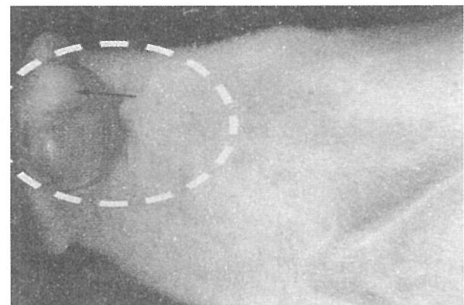
■ 구제역 차단방역 관리, 백신접종이 무엇보다 중요

수년전 전국을 강타한 구제역 피해액은 약 3조원에 육박하고 올해 또다시 구제역이 발생되었다. 2011년 4월 이후 3년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 올해 구제역 청정국(백신접종) 지위를 받았지만 불과 두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경북에 구제역이 발생되었다. 올해 발생한 3건의 구제역 발생원인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미흡했기 때문이므로 철저한 구제역 백신접종은 무척 중요하다.

먼저 백신은 2~8℃에서 냉장 보관하고 얼지 않도록 한다. 사용 30분전에 꺼내 실온에서 유지하고 잘 흔들어 사용한다. 피부와 직각으로 주사침이 완전히 근육 속으로 들어가게 접종하며 1두 1침이 권장되나 자동주사기 사용시에는 1침 5두 이내로 위생적으로 접종한다. 특히 백신 접종 전에는 동물을 안정시키고 주위를 조용하게 유지해야 하며 임신초기나 말기의 가축을 거칠게 다룰 경우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산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한다. 또한 농장의 주기적인 소독 및 농장 차단방역준수는 구제역의 전파방지 뿐만 아니라 생산성저하 질병의 전파도 방지하므로 반드시 실시한다. 구제역의 주요 증상으로는 거품 섞인 침 흘림과 잇몸, 젖꼭지, 발굽의 물집과 궤양 형성 등이며 의심증상 발견시에는 가축방역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구제역 증상(침흘림, 소)



» 구제역 증상(궤양수포, 돼지)



» 백신접종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철저한 소독과 차단방역이 중요

올해 1월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는 9월 이동제한 해제까지 543농가 1,391만수가 살처분되었으며 최근 또다시 전남지역에 발생되어 피해를 주고 있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증상은 닭에서 사료섭취가 급감하고 갑작스런 폐사, 비늘 청색증과 산란율 감소, 안면종대,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난다. 오리는 특이한 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나 올해 발생한 H5N8형의 경우 폐사 증가, 사료 및 음수섭취량 감소, 설사증상(흰색 또는 녹색) 및 산란 감소의 증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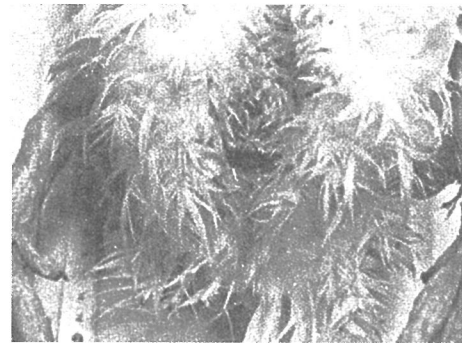
올해 HPAI 발생원인은 철새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확인하였고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바이러스의 농장내 유입경로는 야생조수류, 가축이동, 차량, 축주 및 농장출입자, 밀집 등에 의한 인근 전파, 계열관리자의 방문, 남은 음식물 공급 등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GPS를 부착한 철새의 이동경로를 파악한 결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중국 하이룽장성 하얼빈시 인근에서 추적됨에 따라 올해 겨울 역시 철새로 인한 전파위험이 우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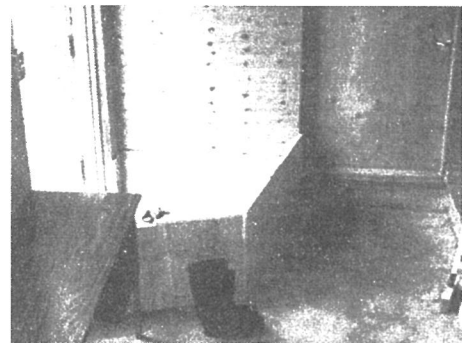
조류인플루엔자 전파의 가장 큰 요인은 바이러스가 있는 분변이다. 분변 1g에 닭 십만 내지 백만 마리를 감염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가 존재한다.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의 핵심은 농장내로 분변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다.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농장 출입의 최소화, 사료, 깔짚 등 축산관련 차량 및 외부인의 출입차단 조치가 필요하고 농장 진입시는 반드시 차량 소독, 특히 차량바퀴의 세척, 소독이 중요하다. 관리자가 축사내로 진입할 때도 전용 신발로 갈아 신고 각종 기구를 축사간 공용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축사에는 전실을 설치하여 외부의 오염원이 들어가는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닭 청색증



> 오리 설사변 오염



> 농장 전실 예시

* 가축방역기관 : 1588-9060, 1588-4060, 질병증상사진 : 농림축산검역본부 협조

《출처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2014년 11월호》